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이방현

전화 054-250-4398 / 팩스 054-250-4348

보도자료

2020. 2. 21.(금)

제 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 재편성

-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(지청장 박재억)은 2020. 4. 15.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, 2020. 2. 15.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·재편성하여 특별근무 체제를 실시함
-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(금품수수, 여론조작,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) 등에 대해 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아 선거 범죄에 엄정대응 하여 ‘공정한 경쟁질서’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
1

선거전담수사반 확대·재편성

-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19. 10. 18.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선거전담수사반(반장 : 형사1부장 이방현)을 운영하여 왔음
- 대검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철저 대응 지시에 따라 2020. 2. 15. 선거전담수사반에 기업범죄 전담 검사실, 수사과를 포함하고 특히 수사과에 수사관 1명을 보강하는 등 확대·재편성하여 선거범죄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함

2

주요 추진 계획

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 엄정 대응

- 금품수수, 여론조작,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,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청 전체 수사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

중점 단속대상

▶ 금품수수

-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,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, 경선·본선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·요구, 정당투표율 제고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기부행위 등

▶ 여론조작

- 경선·본선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,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,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, 여론조작 등

▶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

-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,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'외곽단체'를 설립하는 행위 등

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

-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, 피의사실 유출 금지, 제보자 보호 등 적법절차 철저히 준수하고,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대응하겠음

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

- 선관위, 경찰과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법률적용, 수사방법, 입건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,
- 특히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고발전이라도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선거사범 신고센터

▶ 검찰

국번 없이 1301, 야간 054-250-4290

▶ 선거관리위원회

국번 없이 1390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nec.go.kr>(국민신문고민원)

▶ 경찰

국번 없이 112, 인터넷신고 <http://www.police.go.kr>(국민참여소통)